



우리 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대한LPG산업환경협회는 공동으로 LPG(프로판)특소세 폐지를 위해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장, 가스산업팀장,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 앞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제출했다.

제 목 LPG(프로판) 특별소비세 폐지 건의

1. LPG(프로판)는 LNG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과 도시 저소득층(산동네 등)의 난방연료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LNG 도시가스 대비 80%정도 비싼 LPG (프로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연료비마저 비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또한 LNG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보급/확대 지원 정책을 통해 급성장함에 따라 LPG(프로판) 산업이 급속히 위축됨으로써 비상시 국가에너지 안보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으므로 에너지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 배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3. 이와함께 경쟁연료인 등유에 대한 특소세 및 판매부과금 인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PG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인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청정연료인 LPG보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저소득층의 부담완화, 연료간 형평성 및 청정연료 보급을 위하여 LPG(프로판)의 특소세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첨부 : LPG(프로판) 특별소비세 폐지 건의서 1 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김 창 기
한국LP가스공업협회 회장	유 수 루
대한LPG 산업 환경 협회 회장	정 진 성



LPG(프로판) 특별소비세 폐지 건의서

→ → 건의사항

LPG(프로판) 특별소비세 폐지

→ → 건의사유

1) 경쟁연료 가격 대비 불균형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필요성

○대부분의 LPG(프로판) 소비자들은 LNG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과 도시 저소득층으로, 난방연료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LNG 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LPG(프로판)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연료비마저 비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용 연료 가격경쟁력 비교

(단위 : 원/천ℓ)

구 분	LNG(원/㎥)	프로판(원/kg)	보일러 등유(원/l)
세후 소비자 가격	618.77	1,259.29	966.50
유효열량(천ℓ)당 가격	69.33	123.46	134.69
(비교지수)	(100)	(178)	(194)

주) LPG/보일러등유: '07년 4월 3주 석유공사 서울시기준, LNG: '07.3월 서울시 주택난방용 가격

소득수준 및 지역별 에너지소비 점유율 비교

(단위 : %)

구 분	소득수준(만원/월)		지역별	
	100 이하	500 이하	읍·면 지역	시 지역
LPG	11.2	5.6	25.4	7.4
LNG	27.4	50.7	3.9	46.7

주)에너지경제연구원 '2005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2006

○또한, 사치성 과소비 품목의 소비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특별소비세를 서민연료인 LPG(프로판)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 과세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고비용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PG업계 공동으로 LPG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소세 폐지 효과가 유통비용에 흡수됨이 없이 모두 소비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계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불균형 개선 및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특소세를 폐지한다면 세수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프로판 난방용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어 세수감소 규모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 규모 : 연간 약 920억원 (2007년 예상수요: 230만톤)

○수혜 대상 : 약 7백만가구 (21백만명, 3인/가구 기준)

2) 에너지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세계 지원 필요성

○LNG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LNG 보급/확대 지원 정책으로 인해 급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LPG(프로판) 산업은 급속히 위축됨으로써 비상시 국가에너지 안보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으며, 에너지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 LNG수급 부족 우려

- 특히, 경쟁연료인 등유에 대한 특소세

및 판매부과금 인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LPG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한 수준의 세계 인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위배되며, LPG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구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인해 청정연료인 LPG에 대한 세계 인하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최소한 타 경쟁연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